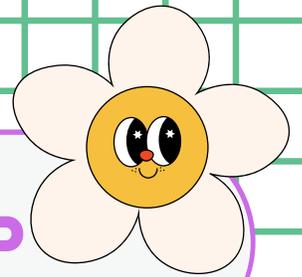




MAY 2024



CHODAE COMMUNITY CHURCH

# SEED FAMILY WORSHIP

Connecting Parent and Child Generation through a Spiritual Conversation

##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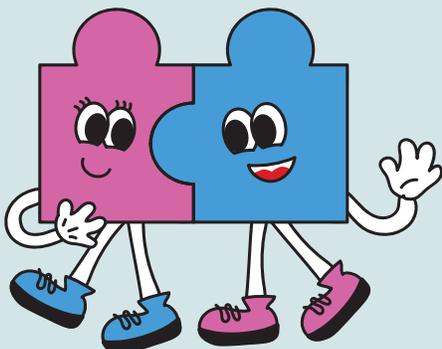
요한복음 20:1-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29)

## FAMILY ACTIVITY "THE BIG PICTURE PUZZLE"

준비물: 퍼즐 핸드아웃 (2개씩)

1. 퍼즐 핸드아웃을 두장씩 프린트합니다. 첫번째 카피는 퍼즐 모양대로 자르고, 나머지 카피는 그대로 둡니다.
2. 리더가 퍼즐의 한 조각을 보여주며,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맞추도록 합니다.
3. 또다른 퍼즐의 조각들을 차례로 보여주며, 먼저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 맞추는 팀이 이기는 것으로 합니다.
4.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맞추었다면 자르지 않은 퍼즐의 완성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큰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문제의 의미를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쉽지 않습니다. 옹처럼 하나님께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욘 13:24)” 라고 하소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감춘채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것 대신에 마리아의 고통이 계속되도록 잠시 두십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물론 마리아는 너무 작아서 그분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의 속 뜻은 종들이나 시킬만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일 처리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과 자원과 베팅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눅 8:2-3) 만일 예수님이 즉각 자신을 드러내셨더라면 우리는 마리아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었을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다정한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 달려오시어 모든 문제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해결해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자라나지 못할것입니다. 우리는 번데기 고치에 영영히 갇힌 애벌레같은것이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꺼내주기만 기다리겠죠. 우리가 함께 보는 책의 저자 폴 밀러와 그 아내는 발달장애가 있는 딸 킴을 키우며 20년이란 세월동안 놀랍게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강하여졌을때 그들의 번데기 고치를 깨고 나와 나비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의 삶은 한편의 스토리 같아요. 하나님께서 작가이시며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죠.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가지 삶의 아픔과 고통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색깔과 성격, 우리의 강점과 약점들이 모두 어우러져,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며 우리는 마치 나비와도 같이 아름답고 멋지게 변모해나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지나며 절망하고 불평하기 보다는 소망가운데 기다릴수 있을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깨어서 그분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을것이고 늘 감사할 수 있을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멋진 엔딩을 봐야만 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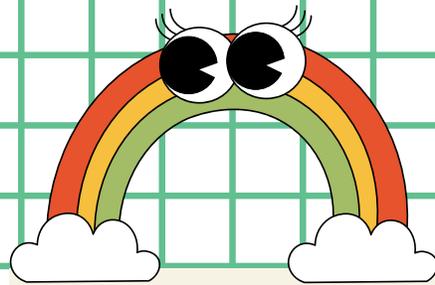
## TALK



1. 반전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본적이 있나요? 우리가 중도에 그만뒀다면 어땠을까요?
2. 내 삶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스토리를 쓰고 계신걸지 한번 생각하고 나누어보아요
3. 오늘 배운 내용을 한문장으로 줄여보아요
4.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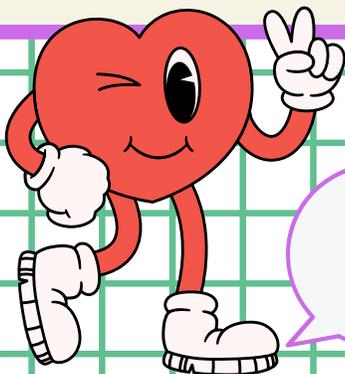
## CONCLUSION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갔을때 예수님이 살아계실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들의 삶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어떤것을 준비해두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쓰시는 작가이신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세요. 우리들 삶의 이야기에 목적과 예술적인 반전과 클라이막스 그리고 엔딩까지 모두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 너무 힘겹고 무거워 그것을 깨닫기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쓰고 계신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해요. 그분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믿을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돌아보았을때 하나님은 늘 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늘 그러하실 것이며, 더욱 더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실거예요!



## ENDING PRAYER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늘 신뢰하기 원해요. 당신은 우리 삶의 이야기의 작가이십니다. 우리 삶의 큰 그림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 우리가 더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아픔과 고통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목적과 계획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씨앗순예배 교육모임은 매달 마지막 주일 3부예배 후 (1-1:30PM) 교육관 유년부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간단한 다과가 제공됩니다. 모든 교제와 동영상은 초대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